

워싱턴지역 교포들에게 드리는 호소문

1992년 12월 1일, 서울에서는 [정신대 할머니 생활기금 모으기 국민운동]이 각계인사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족을 보았습니다. 이날, 취지문에서 “정신대 문제는 일제의 우리나라 침략역사 중 가장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범죄이며 이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통하여 한.일 양국 및 국제사회의 인권과 정의, 평화의 기준을 확립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신대 할머니들은 살아계실 날이 얼마남지않은 고령에, 모두가 병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할머니들은 역사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소중한 역사의 증언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0여년간 그들은 우리 정부나 국민들로 부터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듣지못하고 가난과 피해의식 속에 숨을 죽인채 살아왔습니다. 그보다 더욱 감당키 힘든 할머니들의 고통은 그들에 대한 오늘의 일본정부의 태도입니다.

일본정부는 역사를 외면한채 아직도 정신대 강제연행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더우기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나 공식 사과없이 얼마간의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이 문제를 조기에 은폐시키려는 태도를 계속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의 해결은 우리 민족이나 피해자들에 대한 더욱 큰 모욕일뿐만아니라 “한국사람이 몇푼의 돈을 받으려고 과거문제를 들고 나왔다”는 잘못된 인식만을 일본인에게 심어 줄 뿐입니다.

[워싱턴지역 정신대 대책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22일 회의를 열고, 정신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생계와 대책활동을 위한 지원에 우리 정부와 국민이 나서야 한다는 생각에 뜻을 같이하고 서울에서 시작된 [국민모금운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민족적 자존심과 역사적 명분을 지키려는 이 투쟁을 할머니들에게만 맡기는 것은 우리 민족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미주지역에서는 워싱턴지역에서 이 운동에 핫불을 들기로 결정을 한것입니다.

이 모금운동은 70대 고령인 정신대 할머니들의 생계에 도움을 드림으로, 비밀을 간직한채 한평생을 분노와 수치심으로 한스럽게 살아온 우리 할머니들에게 동족으로서 정성어린 위로와 따뜻한 격려를 드리는데 그 근본 뜻이 있습니다.

본 위원회는 위에 설명한 취지에 입각, 우선 이 지역에서 [한가정당 10불, 1000가정 모금운동]을 목표로 이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운동에 여러 교포가정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을 호소합니다.

워싱턴지역 정신대문제대책위원회